북핵 불능화 '로드맵' 논의

■제 6차 6자회담 오늘 개막

BDA 전액 해제 가능성 시사

6자회담 참가국들이 17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영빈관에 모여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를 갖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19일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제6차 6자회담을 열고 분야별 실무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 다음달 말이나 5월초에 열릴 것으로 알려진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의 일정과 의제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6개국은 19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하며 이후 10시50분에 공식 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장국 중국은 이번 회담의 협의결과를 의장성명이나 의장요약 등으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일단 20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의 진행상 필요할 경우 21일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개국은 18일 오후 비핵화실무그룹 이틀째 회의를 열어 불능화(disablement)의 개념 규정과 초기단계 이행조치의 세부계획 등을 협의했다. 아울러 각국은 초기단계 이후 조치인 핵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까지의 로드맵을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이행시한을 설정하는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한과 IAEA는 지난 13~14일 국제원자력기구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방북 때 '2·13 합의'에 따라 폐쇄·봉인할 핵시설로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등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때 동결대상이었던 5개 시설을 선정하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오전 회동을 갖고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 내용을 점검했다.

힐 차관보는 "우리는 매우 합리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그것은 모두의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에 나는 그(BDA)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우리 시각으로는 BDA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美 메릴랜드주 교육委 '요코 이야기' 퇴출

일제 말기 한국인을 가해자, 일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해 역사왜곡 논란을 야기한 '요코이야기'(So Far From the Bamboo Grove)를 학교에서 더 이상 교재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미국 지방 교육당국의 첫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메릴랜드주(州)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16일 주미 한국대사관과 한인 단체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요코이야기'가 "역사적 부정확함과 한국인을 잘못 묘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 책을 권장도서 및 6학년 교재 추천도서 목록에서 '삭제'(remove)'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한국인을 잘못 묘사

교재 목록서 '삭제'

이에 따라 몽고메리카운티 관내 학교에서는 더 이상 '요코이야기'를 교재로 쓸 수 없게 됐으며 각급 학교와 공공도서관 등도 권장도서에서 제외된 이 책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을 전망이다.

요코이야기의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진 뒤 미국 내 일부 사립학교와 뉴욕의 한 공립학교가 이 책의 교재 사용을 중단한 바 있지만 교육당국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기는 처음이다.

권태면 워싱턴 주재 총영사는 "이번 결정은 한인 학부모와 단체들이 뜻을 모아 이끌어낸 쾌거"라며 "수도인 워싱턴 인접지역에서 이처럼 좋은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른 지역 교육당국의 검토에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라크戰 4주년…세계 곳곳 반전 집회

미군 주도 다국적군의 이라크 침공 4주년을 맞아 17일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라크 침공을 규탄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에서는 시위자들이 가짜 관들을 들고 가두행진〈사진 위〉을 벌였으며, 헝가리 부다페스트〈가운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에서도 횃불과 촛불을 동원한 반전·평화 집회가 이어졌다. /로이터AP=연합뉴스

中, 압록강 하구에 3천만평 산단 조성중

北 대외 개방정책 영향 미칠지 주목

중국이 압록강 하구지역에 약 3천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용 부지를 조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의 접경지역 개발은 지난 91년 북한의 라진·선봉 경제자유무역지대 개설과 2002년 신의주특구 추진 등 인접한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대규모 개발이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과 개발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랴오닝단둥임강산업원구계획통제용지도(遼寧丹東臨江產業園區統制用地圖·이하 계획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유초도에서 비단섬으로 이어지는 압록강 국경지역에 총 97㎢(약 2천935만평)의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도는 '조정전 단둥산업원구총용지면적'을 30㎢로, '조정후 단둥산업원구총용지면적'을 97㎢로 각각 표기해 공사착수 규모가 처음 계획보다 3배 이상 확대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압록강변 개발계획은 추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단둥시는 2005년 5월 국가급개발구였던 단둥변경경제합작구를 발전시켜 새로운 경제구를 추진키로 결정하고 수립한 압록강 개발계획에서 총 개발면적을 무려 288㎢(약 8천700만평)로 정한 바 있다. /선양=연합뉴스

中 "2010년 이전 항공모함 완성"

항공모함 건조설 시인

말로만 떠돌았던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설이 중국 정부의 장관급 당국자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장원촨 국방과학공업기술위원회 주임은 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이 열린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기자들과 만나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장 주임은 "자체 기술로 항공모함을 연구, 제작하고 있으며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2010년 이전에 항공모함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항공모함 건조설에 대한 질문에 중국은 해상안전 보위와 영해주권 수호를 위해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日 각의, 위안부 강제성 부인

NYT "미국서도 분노 야기"

뉴욕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에 대해 아시아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 각의의 이번 결정 배경과 지난 1993년에 나온 고노 담화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뒤 일본 각의의 결정이 아시아 전역에서는 물론 위안부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먼로 죽음 뒤에 케네디가 있었다"

濠 출신 작가 FBI 문서 찾아내

"자살로 유도 내지 직접 참여"

섹스 심벌의 전설이 된 마릴린 먼로의 죽음 뒤에는 미국 정치가문의 상징인 케네디가의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가 있다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주 출신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필립 모라가 미연방수사국 문서를 인용해 주장했다.

모라는 17일 호주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이 먼로의 죽음과 로버트 케네디를 연계시킨 FBI 문서를 처음으로 찾아냈다면서 이 문서는 약물 중독에 의한 먼로의 죽음과 관련된 40년 전의 소문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형인 존 F 케네디 대통령 밑에서 법무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케네디와 먼로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번에 발견된 비밀문서는 무엇보다 먼로를 자살로 '유도하는 계획'을 로버트가 알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 직접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모라는 설명했다.

모라는 총 3쪽 분량의 이 문서를 보면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던 배우 피터 로포드, 먼로가 다니던 정신과 병원의 의사, 먼로의 홍보 담당자 등이 먼로를 자살로 유도하는 음모에 참여한 게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오클랜드=연합뉴스